

# “부처님 말씀 만났다면 깨달을 준비된 사람 되세요”

## 2 생활 속의 간화선수행

### 전등사 선원장 동명 스님

출·재가 참선 수행자들이 산사의 선방이나 시민 선방에서 단장거 결제(음력 10월 보름)에 들어간 지 20일째를 맞은 12월 2일, 서울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전등사 전등선림(선원장 동명) 선방에도 20여 우바이들이 태산처럼 우뚝하니 좌복 위를 장엄하고 있었다.

전등사는 현대의 선지식인 해안(海眼, 1901~1974) 스님이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에 희망이 있다”며 1967년 만든 ‘불교전등회’의 등불을 이어온 재가 참선도량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수행해야 한다”며 전등사를 개원한 해안 스님은 “화두일념에 들면 누구나 7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며 재가불자에게 용기를 주고 참선을 지도한 선지식으로 유명하다.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풍을 떨쳤던 해안 스님의 유지를 이은 전등사는 오늘날 여전히 해안 선사의 육성법문을 들으며 선(禪)의 기풍을 이어오고 있다.

전등선림의 수행 일정은 안거를 제외한 기간에도 선방의 문을 열어 개인별로 토요 철야정진을 하는 등 자율정진이 진행된다. 안거 수행자들은 오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8시간 이상 참선한다.

대중과 함께 선방에서 좌선하며 힘을 주거나 수시로 선원장실에서 일대일 점검을 하며 수행자를 지도하는 동명 스님을 만나 재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참선하는 법에 대해 질문했다.

—달마 대사는 2조해가 대사가 안심(安心)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불안한 그 마음을 찾아보거라”라는 말로 안심을 주었습니다. 선법문은 그야말로 안심법문인데, ‘안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알면 편안한다, 모르니까 마음이 안되는 거죠. 재가가 스승에게 “마음이 어떤 것이냐?”고 자주 물어도, 스승은 말을 잘 안해줍니다. 제 스승님(해안 선사)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뜨겁게 없는 말 하지 말라”며 혼을 냈다. 그렇게 설명으로 주고 받아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마음은 뛰니, 어쩌니 하며 주고 받지만 사제기간에는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이심전심으로 주고 받을 뿐이죠. 차를 갖다 올리면 차 마시고, 일을 시키면 일하는 가운데 저절로 본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안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스승 아래서 일상생활을 하되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체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전등선림의 수행기풍은 생활 속에서도 마음공부를 잘 하도록 이끄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저는 스승님께 “법문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질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을 진솔하게 잘 하다보면 저절로 마

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구래부동명위불(舊來不動名爲佛, 옛부터 움직이지 않아 부처라 이름하네)’이란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오랫동안 동하지 않고 꾸준히 진실하게 할 때 참마음(真心)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물어보는 것은 거꾸로 된 망상일 뿐이죠.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물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 스승님은 ‘미기추물(迷己追物)’이라 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물건(대상)에게만 쫓아가니까 험덱고 불안한 거죠. 임제 스님의 ‘수처자주(隨處作主: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래에 서양종교가 들어와서 밖으로 추구하는 신앙을 많이 모방한 것 아닐까 해요. 국민들이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불나비가 불속에 뛰어든듯이 늘 바쁘게 다니는 느낌이에요. 일본에서는 빵 하나 굽는 일을 100~200년 가업으로 이어서 해요. 오랫동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장인(匠人)이자 수행인입니다.

—결국 세상이 무너져서 자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행의 힘이 부족해 이런 고통을 함께 당한다 말씀이군요. 공업(共業)이라고 할까요?

수행이란 자기 업을 바꾸는 행위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는 다 비슷하지만 마음 씀씀이는 다 다릅니다. 마음 씀씀이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죠.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행동이 삶 속에서 우러나와요.

—해안 선사께서는 ‘7일만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스승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간절해야 가능한 거죠. 해안 스님은 학병 선사의 경책과 화두 ‘은산 철벽(銀山鐵壁)’을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믿고 받아 지냈기 때문에 견성할 수 있었어요. 스승의 말씀을 간절히 참구해서 1주일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두일념에 집중할 수 있다면 타파가 안될 수 없죠. 잠이 와도 졸린 줄 모르고 허리가 아파도 아플 틈이 없을 정도가 되려면 스승의 답답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은 마음이 산란해서 잠서도 앉았지 못하고 불안해 하죠. 스승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스승이 제자에게 일어나 침회, 기도를 시키는 것도 산란심을 가라앉혀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좌선 역시 동중공부를 위한 힘을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안정되고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면 다른 일도 더 잘 할 것 아닌가요. 좌선을 잘 하면 일에 임해도 진솔하게 되고 좌선과 일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내가 있어서 산과 바다가 있어서 세상 일이란 내가 만드는 거죠. 일할 때도 수행하듯 하면 더 잘 돼요. 마음이 편 데 가 있으면 일을 해도 잘 안되지요. 저는 요즘도 아침에 108배를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땀도 나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지말고 하면 피곤하기만 하겠죠. 모든 일도 내 일이다 생각하면 잘 됩니다.

—화두공부를 하다 보면 선방에서는 어느 정도 되다가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화두가 달아나기 마련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보자는 일할 때는 화두 놓고 일단 해야지요. 일하거나 운전할 때는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화두 공부는 스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화두의심으로 꼭 막하게 해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가슴에 팻땀이 났을 때 깨치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제대로 화두를 챙기는지 점검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화두의심이 저절로 들기 위해서는 1주일이나 그 이상의 집중수행이 필요합니다. 화두공부는 한가하게 하는 공부 아니니까. 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절박한 공부죠. 쇠는 불덩어리 속에서 수없이 망치질과 담금질로 강해지듯이 삶의 고통은 사람의 아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배우게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고 내 몸이 고단해 봐야 수행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살이가 까딱하면 바깥 대상만 쫓아다니는 독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발심만 잘 하면 세속이 고요한 산사보다도 더 훌륭한 공부도량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고?’ 화두의 경우,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가는 놈이 무엇이나, 간경할 때는 경전 보는 놈이 무엇이나, 이렇게 화두를 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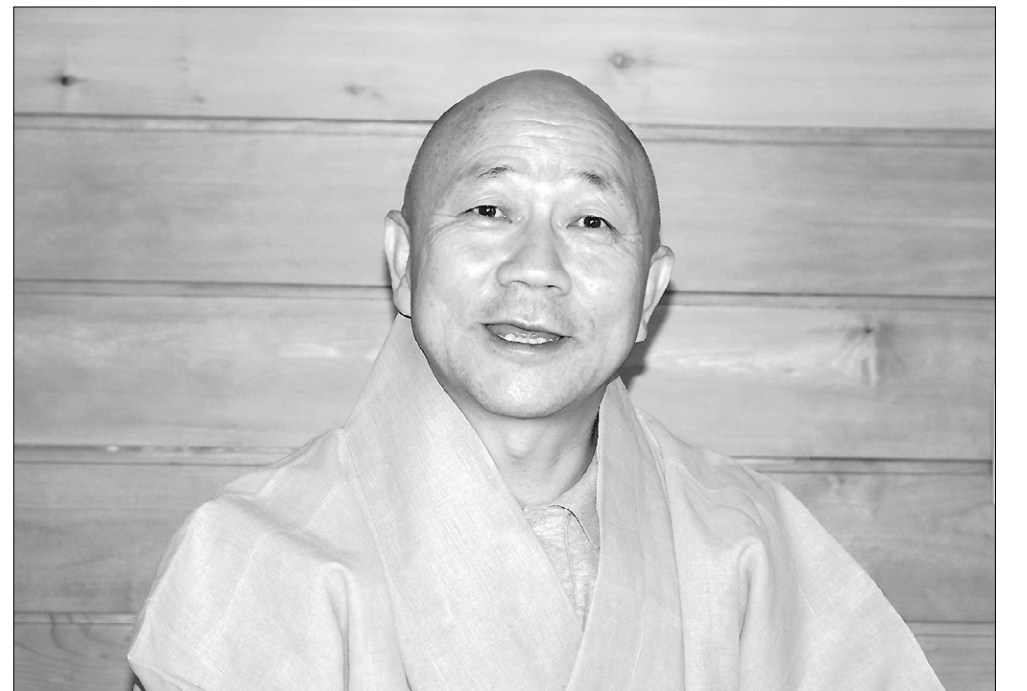
그건 초보자를 위한 방편이죠. 화두의심 갖는 법을 모르니까 기초적인 입장에서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설명일 뿐입니다. ‘이렇고?’는 생각을 뛰어넘는 공부거든요. 그저 의심이 꼭 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설명이 불필요 하죠.

—스님께서는 초보 수행자에게는 참하나 기도, 자원봉사를 시킨 후 상담을 통해 적합한 화두를 제시하고, 수시로 일대일 점검을 통해 지도하고 계신 점이 일반 선원과 다른 점 같습니다.

처음 짚어 오는 불자들이 출세없는 아만을 잔뜩 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해도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하니 아상(我相)을 부수기 위해 절도 시키고 참하나 어르신 수발하는 자원봉사도 시킵니다. 그러면 점차 산란심이 없어져 안정되게 되죠. 우리 절에서는 신발과 방석 정리에서부터 생활태도 등 모든 게 반듯해야 해요.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더욱 흔들림 없이 화두의심에 집중하도록 돕는 거죠. 점검을 해보면 수행자가 고요한 상태에 빠져있는지, 망상을 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근기에 따라 지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스님은 물가에 데려다 주는 입장인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에게 달렸지요.

—탐진치 삼독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 여부로 수행자의 공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차분하고 맑은 바 일도 잘 하고, 인격도 훌륭하죠. 마음이 안정돼 있으니까요. 화를 내더라도 빨리 풀이켜서 반성하기에 바로 풀이



일상생활을 진지하고 안정되게 하는 것이 생활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동명 스님. 스님은 화두일념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자기를 잃고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

##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화두공부... 발심하면 세속이 수행도량

지요. 언행을 보면 탐진치가 어느 정도 조복이 됐는지, 공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부처님이란 완전한 인격자 아니겠어요.

—선방에서 방선시간에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을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안심법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법문이니깐요. 전등선림을 창건한 해안 스님의 기풍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법문은 10분씩만 듣게 해요. 많이 들으면 집중해서 듣지도 못하고 타성에 젖어 법문이 귀한 줄 모르게 되거든요. 책도 직접 사서 봐야 자세히 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들이 모두 겸손하신 것이 절 기풍으로 여겨지는군요.

해안 스님께서는 당신을 낚아서 ‘축성여석(築城餘石)’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성을 쌓고도 남은 돌이 없으면 돌이란 뜻이죠. 그만큼 겸손하신 거죠. 도인이 되면 천진난만하고 일상생활이 조화돼 거칠지 않아요. 스승님은 입적 3일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때문에 행장조차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상좌들이 간청하니 ‘해안범부지비(海眼凡夫之碑)’란 여섯 글자만 쓰도록 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

어디로 간다는 수행이력이 다 군더더기만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지요.

—해안 선사께서 유언으로 남긴 ‘생사서시(生死於是 是無生死)’란 법문은 독창적이면서도 깊은 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게 이것(是)인데, 이것은 죽고 사는 게 없다’ 이런 뜻인데 하나의 화두이지요. 이것은 ‘이렇고?’ 화두의 ‘이’와 같습니다. 이 ‘한물건(一物: 본래 마음)’을 알아야 번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생사(生死)입니까? 생사를 뛰어넘는 일은 ‘이것’을 아는 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선종의 골수가 담긴 법문이지요.

—결국 ‘이것’ 아닌 게 없네요. 스님.

확실히 알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 중생이니, 번뇌 삼매니 하는 게 다 이것이지요. 세상에 ‘모르는 부처’, ‘아는 부처’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알았다고 해도 내놓을 수도, 내놓을 것도 없어요. ‘법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조사스님들은 “차나 마시게”, “아야, 오늘은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하고 대답하는 게 참 맛이 있지요. 차 한 잔 더 드세요. 대추차가 남자들한테 참 좋다고 하네요.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 天台四教義 강의 안내

강사: **웃음문화사 세명 스님 (원 東大교수)**

천태대사 천태교관사상(天台教觀思想)의 화엄교학(華嚴教學)과 더불어 중급 불교 교학사상의 동시에 선(禪)과 함께 실천수행문의 광범을 이루는 선관사상(禪觀思想)이기도 하는 불교의 이론과 실천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천태교학 사상은 「법화경을 그 중심경전으로 삼는데, 이러한 법화경사상은 5시8교(五時八教)라고 하는 천태의 대표적인 교판(敎判)에 의해 선양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자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 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자**: 2009년 1월 15일
- **강의시간**: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강의장소**: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
- **접수기간**: 2008년 12월 3일 ~ 2009년 1월 14일까지
- **수강료**: 6개월 25만원
- **자격**: (가) 비구, 비구니 15년이상 불교 서울전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승가대학 졸업자 한함  
(나) 재가자: 불교 서울강당 졸업자 및 신입생,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 졸업 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수강신청서 1부
- **입금처**: 농협 053-02-244604 선교경전연구회 - 최재동
- **문의 및 접수**: 02)735-1053, 018-242-7070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教經典연구회 회장 **땃경**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69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아간 및 통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시율(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2009년 1월 1일까지 ◆ 개강일시: 2009년 1월 2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